

죄와 은혜: 『권능과 영광』

이 광 회
(공주대학교)

Lee, Kwang-Hee. (2001). Sin and grace: *The Power and the Glor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7(2), 167-18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in and grace represented in *The Power and the Glory*. This work is composed of two thriller patterns of the pursuer and the pursued. The first pursuit is that the whisky priest, the representative of religious order is pursued by the lieutenant, the representative of secular order. And the second pursuit is that the whisky priest is trying to escape from God. In the course of his flight from God the whisky priest discovers his sinful nature and this self-recognition helps him restore his proper relationship with God. When he was a young priest he had religious piety, but he didn't feel true love for others. Ironically, after he is corrupted he finds his sinful nature and regrets his wrong behavior. He then comes to understand God's will and his responsibility to have love for the miserable human beings. The whisky priest is willing to accept his destiny as a martyr, after having repented his sins to God. Though the lieutenant captures the whisky priest and executes him, he doesn't feel triumph or hope but feels empty. *The Power and the Glory* shows us the irony that the lieutenant's power is a symbol of his weakness, while the priest's weakness is a symbol of his power.

1. 서론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이 1940년에 발표한 『권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은 그의 대표적인 종교소설이다. 또한 그린은 이 작품의 출간으로 명성을 얻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다(Duran 316). 작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멕시코는 당시 공산정권에 의해서 카톨릭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소설의 큰 줄거리는 주인공인 위스키 신부(whisky priest)가 공산정권에 의해서 쫓겨 도망 다니는 도피의 여정이다. 신부의 신분으로 공포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으

며 심지어 브리짓다(Brigida)라는 사생아 딸까지 두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이다. 그린은 신부의 개인적 신앙문제를 “대조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신앙의 본질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린은 천국의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세의 고통을 대조시킨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부가 자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된다는 점이다. 죄의 결과인 딸 브리짓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연민과 책임감은 다른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지고, 남을 위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 그의 영혼이 신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신부의 개인적 구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부의 죄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신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면에서 성경의 로마서 5장 20절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와 상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린이 이 작품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대조적인 요소는 비단 죄와 은혜 부분만이 아니라 유사한 여러 형태로 육체와 정신, 물질과 신앙, 폭력과 평화, 절망과 희망, 순진과 경험, 배반과 충성, 전체와 개인, 계율과 인간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린은 이런 대조적 요소들을 통하여 놀라운 극적 효과를 만들어서 인간실존과 신앙관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독자에게 설득하고 있다.

신앙이 개인 중심적인 문제라면, 신부와 그를 쫓고 있는 공산정권과의 관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 할 수 있다. 신부를 쫓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공산 경위(lieutenant)이다. 그는 검소하고 금욕적이고, 정의감에 불타는 도덕적 깨끗함을 지닌 인물이다. 그의 꿈은 부패한 멕시코 사회를 개혁해서 가난한 인민들이 잘 살게 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공산주의자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위스키 신부와 공산경위의 대립관계는 나아가서 신앙과 사회현실의 문제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예전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작품 연구는 신앙의 개인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그린 최고의 종교소설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그린 소설의 정치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마리아 쿠토(Maria Couto), 주디스 아담슨(Judith Adamson), 브리안 디머트(Brian Diemert) 등에 의해서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스키 신부의 개인적 신앙 문제, 신앙과 정치현실 문제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권능과 영광』에 나타난 대조적인 요소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죄와 은혜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II. 본 론

그린은 알랭(Allain)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 처음 하는 일이 작품의 제목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Allain 139). 그 만큼 제목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밀러(Miller)는 『권능과 영광』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또, 문자적으로 보면 “power”가 사람의 권력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경위를 나타내고, “glory”는 순교를 하게되는 위스키 신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의미에서는 “power”와 “glory” 모두 위스키 신부를 지칭하는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경위는 일시적인 “power”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데 반하여, 신부는 신앙의 “power”와 신의 불가항력적인 힘을 동시에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Miller 56-57).¹⁾

이 작품 제목의 해석상의 문제는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의 역할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칼 패튼(Karl Patten)의 작품 플롯의 분석은 위스키 신부가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그는 이 작품의 주인공 위스키 신부가 작품의 중심에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모두 바퀴 중심축과 연결된 바퀴살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방사선의 패턴”(radial pattern)이라고 부르고 있다(Patten 225). 실제로 그린의 이 작품에서 주로 서술하고 있는 중심인물은 위스키 신부이다.

다시 말해서 『권능과 영광』은 위스키 신부의 “여행 모티브”(Miller 64)에 의해서 구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외국에서 멕시코로 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로서 타국의 정치체제의 간섭을 받으며 외로움과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공허한 사람들이다. 그린은 이 소설의 제 1부에서 하나의 독립된 장의 제목을 “방관자들”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이들이 바로 공허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허는 그들의 삶의 조건, 즉 타국에서의 생활, 무덤고, 습하고, 혹독하게 내리쬐는 태양, 부패한 사회, 공산정권의 탄압정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외로움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들은 신의 보살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신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리처드 호가트(Richard Hoggart)는 멕시코 전체가 이런 “거대한 버림”에 휩싸여서 마치 “버림받은 배”와 같다고 말한다(Hoggart 447). 이런 면에서 주인공 위스키 신부 역시 방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절망과 신의 은혜 밖에 있는 버림받은 공허한 다른 한 사람이다.

이 소설은 무겁고 절망스러운 분위기에서 출발한다. 치과 의사 텐취(Mr. Tench)는 에테르 실린더를 구하기 위하여 밖에 나갔는데, 내리쬐는 멕시코 태양과 뽀얀 먼지만

1) 최재석 교수가 이 작품을 번역할 때 제목을 『권력과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권능과 영광』이라고 한 이유는 경위의 권력과 위스키 신부의 영광이 아니라, 위스키 신부의 권능과 영광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229-230).

거리에 가득하다. 몇 마리의 독수리가 지붕에서 썩은 먹이만을 찾고 있다. 이곳 부두에서 텐취는 남루한 옷차림과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못한 초췌한 얼굴의 위스키 신부와 처음 대면하게 된다. 텐취는 멕시코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자기가 부두에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주위의 환경에 찌든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14년 동안 타국인 이곳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어서 “가정”(10)의 안락함을 느껴 본지 오래이다. 가정이란 그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해서 마치 우편 그림엽서 더미처럼 피상적으로 느껴질 뿐이다. 그는 위스키 신부에게 16년 전의 자기 가족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한 아이는 죽었고, 부인과는 편지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멕시코에서의 생활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안정되고 안전한 곳으로 종종 자신의 “성”(castle)이라고도 부르는(Adamson 44) “가정”이 깨어져 버린 텐취의 가정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중화자는 “외로움, 공허함만이 그(텐취)와 마주하고 있다”(18)고 말한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린의 후기소설인 『인간요소』(*The Human Factor*)에서 주인공 카슬(Castle)이 국가 정보원의 신분이지만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배반하는 일에서도 잘 나타난다.

텐취 치과 의사와 또 다른 비슷한 인물로는 캡틴 펠로우스(Captain Fellows)를 들 수 있다. 그는 항상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척 생활하지만 타국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서러움이 가슴속에 깊이 배어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책임감”(31) 또한 희박하다. 그의 가족이 겪는 외로움은 그의 부인에 의해 분명히 드러난다. 그녀는 항상 고립된 삶의 터전에서 언제 불어닥 칠지 모를 테러와, 두려운 공포, 열기, 실업 등의 문제들을 죽음처럼 해마다 겪고 지내고 있다. 이들 부부에게 13살 난 코랄(Coral)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녀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겁 없이 행동하는 “난공불락의 잘못된 분위기”(a false air of impregnability)(33)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코랄은 그런 거침없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리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딸의 거침없는 행동은 펠로우스 부부에게 적잖이 걱정이 된다.

방관자들에 속하는 또 하나의 인물은 호세 신부(Father José)이다. 그는 위스키 신부와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호세 신부는 신부로서 최소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혼하여 살라고 하는 공산정권의 권유에 못 이겨, 신부로서의 사명과 권위는 다 포기하고 가정부와 결혼하여 살게 된다. 예순 살이 넘은 호세 신부는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호흡도 거친 편이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자신의 40여년간의 신부 생활을 죽 회상할 때 자신을 마치 “불타서 버림받은 배”(29)로 여긴다. 그러나 그가 형식상 가지고 있는 힘(power)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부의 권위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도리어 “신성모독”(sacrilege)(29)이고 불경한 태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의 기도에는 행동으로 옮길 만한 의도가 전혀 없으니 폐배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집 창가에서 호세 신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릴지라도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호세 신부 자신이 자기

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차라리 총살당해서 순교한 신부를 종종 부러워한다. 그의 아내는 정부가 주는 연금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보장된 생활에 만족하지만, 호세 신부는 그런 생활을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알고 자기가 “완전히 버려진 별”(the whole abandoned star)(30) 속에 있음을 자각한다. 이런 방관자들의 삶을 얼핏과 웨리스(Allott and Farris)는 한 마디로 “외로움과 단절”(loneliness and isolation)의 생활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버려졌다는 의식”(common sense of desertion)으로 젖어 있다는 것이다(Allott and Farris 175).

이와 같이 이 소설의 분위기는 썩은 먹이 감을 찾아 하늘에서 빙빙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운명의 징표”(a token of destiny)(20)로서 도처에 떠있는 것처럼, “죽음과 부패”(death and decay)(De Vitis 76)가 전체적으로 감돌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위스키 신부도 이런 주변여건 속에서 그의 도피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행”(travel)은 없지만 “여행 모티프”(journey motif)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밀리는 위스키 신부의 여정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길을 따라(a linear journey)가다가 다시 돌아오는(a circular journey)여행을 하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프론테라(Frontera)항구 마을에서 텐취 치과의를 만나고 바나나 농장으로 가서 코랄을, 마리아(Maria)의 마을에서는 정부였던 마리아와 딸 브리짓다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쫓고 있던 공산경위와 조우하게 된다.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라 칸델리아(La Candellaria)를 거쳐 수도인 빌라히모사(Villahermosa)에 갔다가 주에서 금하는 술을 소지한 죄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그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작은 소우주(microcosm)이라고 부르는 데, 그곳 감옥에서 위스키 신부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느끼게 된다. 다행히 여기에서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공산경위의 호의를 받으며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 다시 바나나 농장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어린 자식이 죽어 가는 한 인디언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 후에 그는 비교적 안전한 곳인 추바스(Chiapas)주에 가서 독일 태생의 레르스(Lehrs)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총에 맞아 죽어 가는 한 강도인 칼버(Calver)에게 고해 성사를 위해 방문해 달라는 혼혈인의 요청을 받고 다시 타바스코(Tabasco)로 되돌아 왔다가 공산경위에게 체포되어 수도로 이송되어 죽게된다(Miller 64-65).

처음 소설에 등장해서 텐취 치과의를 만나는 위스키 신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공허한 얼굴”(hollow face)(9)이다. 작은 키에 검정 색의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는 서류가방을 들었는데 얼굴은 며칠 째 수염을 깎지 못한 초췌한 모습이다. 그가 팔에 낀 소설책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불 안정된 일면을 보여주는 듯 하다. 여기에서 그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낯선 자”(stranger)로 지칭되는데, 그가 항구에 나타난 목적은 제너럴 오브리곤(General Obregon)배를 타고 베라 크루즈(Vera Cruz)로 가려던 참이었다. 그린의 다른 작품 『명예영사』(The Honorary Consul)의 플라르(Plarr) 의사도 위스키 신부와 비슷한 처지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동안 살면서도 이곳 사람

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영원한 “낯선 자”(14)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고국인 영국의 여권을 십년 마다 갱신한다. 다만 플라르 의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인데 반하여, 위스키 신부는 자기 나라이지만 신앙 때문에 탄압을 받아 “낯선 자”로 지낼 수밖에 없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위스키 신부가 자신이 가려던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위스키 신부가 텐취의 집에 잠시 있는 중에 한 어린아이가 나귀를 타고 와서, 그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텐취는 자기는 의사가 아니고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위스키 신부에게 이곳 사람들은 과장되어서 조금 아프면 죽어간다고 말하곤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준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갈 길 때문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배를 타는 일을 포기하고 아이를 따라간다. 결국 그는 이 일로 해서 그가 타려던 제너럴 오브리곤 배를 눈앞에서 보고서도 놓치게 된다. 다시 어둠 속을 나귀를 타고 술기운을 느끼며 이동할 때, 배를 놓친 것에 대한 일말의 “절망감”(he was abandoned.)이 아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미움”(an unwilling hatred)을 불러일으키며 자포자기에 이르러, 차라리 잡혀 버렸으면(Let me be caught.)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기 부족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서 아프리카 부족의 장”(the King of a West African tribe)(19)을 떠올린다. 위스키 신부의 첫 여정은 이렇듯 자기 양을 돌보는 일(ministry)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밀러는 그의 여정을 특별히 “영적인 여정”(spiritual journey)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속에 “인간에”(humanity)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Miller 65). 반면에 위 사건의 경우, 텐취는 자기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아이와 위스키 신부를 보내지만, 혼자 자기 집에 들어섰을 때에는 심한 고독감을 느낀다.

몇 년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신부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별 어려움 없는 유복한 환경이었다. 그는 카르멘(Carmen)에서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미국 신학교(American Seminary)에서 6년간 공부를 한 다음 컨셉션(Concepción)에서 사역을 했다. 현재 현상금이 걸려 경찰서에 붙어있는 사진이 바로 첫 영성체 때 젊은 남녀 성도에 둘러싸여 찍은 사진인데,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다. 공산경위의 눈에 비친 신부의 모습은 가증하기 짝이 없었다. 안정된 생활, 입에 바른 진부한 종교적인 말, 삶을 너무 쉽게 여기며 말하는 농담들을 보면, 분명 그는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편안한 사람”(a happy man)이었다(22). 그러나 위스키 신부 자신은 술을 소지한 죄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벽에 붙어 있는 자신의 현상수배 사진을 보며 그 당시를 회상하는데, 경위가 보는 눈과는 달리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는 당시의 자신을 “순진”(innocence)하다고 보는데, 그때 도리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행위로 보면 지금 훨씬 “타락”(corruption)한 자신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공산 경위는 외모부터 강인하고 차가운 인상을 풍긴다. 날카롭고 구부러진 콧날, 턱에 있는 상처, 허리에 찬 권총, 반짝거리는 단추의 산뜻함 등이 그의 야심을 반영하는 듯 하다. 그가 “의도된 준엄한 걸음걸이”(intent observant walk)(24)로 걸을 때에는 마치 신부의 당당한 풍모를 연상하게 만든다. 그의 생활은 금욕적 이어서 여자에 대한 욕망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는 신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역시 “공허함”(vacancy)을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신비주의자이다. 그의 이성은 “죽어 가는 인간의 존재, 차가운 세상, 아무 목적 없이 동물에서 진화한 인간이란 확실성”(a complete certainty in the existence of a dying, cooling world, of human being who had evolved from animal for no purpose at all)(24-25)을 경험할 뿐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못 마땅한 것들은 모두 파괴해 버리고 싶어한다. 그는 다섯 명의 신부들을 붙잡았는데, 어떤 신부들은 도망가고 어떤 한 신부는 결혼해서 살라는 법에 따라 순응해서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경위는 “육신의 연약함”(the weakness of the flesh)(25)에 대해서는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비정한 인물이다. 그는 자기 상사인 경찰서장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인 만큼 철저한 직무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공산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 그래서 그는 위스키 신부가 잡히지 않는 대가를, 그가 살던 마을 사람에게 요구하며 그들을 인질로 하나씩 잡아가서 죽이는 무서운 오류를 서슴지 않는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느껴오던 인간의 비참한 조건들을 모조리 제거하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의 의도이지만, 그는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교회, 외국인들을 학살할 무서운 계획을 세운다.

『권능과 영광』에서 경위는 한 개인의 성격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상징성을 띤 인물이다. 호스킨스(Hoskins)는 공산경위가 독신 생활을 고집할 만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신념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highly disciplined) 삶을 사는 신부 이상의 “신부다운”(priestlike) 면모를 보여준다고 평하고 있다(Hoskins 265). 펜들톤(Pendleton)은 경위가 “신부의 전형적인 모습”(a stereotypical version of a priest)을 보인다고 말한다(Pendleton 99). 루이스는 경위와 신부의 이러한 공통점을 “역설적인 닮은 점”(paradoxical resemblance)이라고 말하면서, 신부를 “지치고 때로는 술 취한 신의 병사”(the exhausted and sometimes drunken soldier of God)에 비유하고, 경위를 “신이 없는 사회의 정결하고 무섭도록 헌신적인 신부”(the chaste and fiercely dedicated priest of the godless society)로 비유한다(Lewis 207). 또한 애담슨은 공산경위의 “막시즘”(Maxism)과 신부의 “카톨릭시즘”(Catholicism)의 이념적 상호 모순성을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본 다기보다는 막시즘의 더 큰 범주인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대한 카톨릭시즘의 승리로 본다(Adamson 52). 그래서 경위가 지향하는 “집단의 선”(the collective good)보다 위스키 신부가 지향하는 궁극적 개인주의

(the ultimate individualist)가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Adamson 62). 어랏과 화리스(Allott and Farris)는 추적을 당하는 신부와 뒤를 쫓고 있는 공산경위의 관계를 대립관계(the antithetical relationship)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의 반대적 입장은 개인적인 문제 이상의 사회적 상징성을 지녔다고 본다(Allott and Farris 174). 칼 패튼은 신부와 공산경위의 전투는 인간들의 싸움 속에 있는 전투로, 공산경위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냈는데, 그 교회는 믿음과 희망이 없이 단지 인간들의 물질적 욕구에 근거한 세상이라는 교회로서, 경위가 그 교회의 금욕적인 신부라고 비유한다(Patten 59). 작가 그린의 위스키 신부와 공산경위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은 이들이 교회와 공산정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운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2부의 시작은 위스키 신부가 자신과 씻을 수 없는 죄인 육체적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는 장면에서 출발한다. 나귀는 거의 12시간을 산 속을 헤매며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앞으로 가나 옆으로 가나 군인과 빨간 셔츠를 입은 민병대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길을 막고 있다. 위스키 신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잠시 웃음이 나오고 행복감에 젖는다. 아마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고 사생아인 자기 딸을 만난다는 희망이 그를 그렇게 만든 듯 하다. 위스키 신부는 자기의 얼굴 표정을 익살스럽게 만들어 보며 혼자 두려움과 외로움을 잠시 잊어 본다. 위스키 신부는 자신의 이런 익살스런 모습을 보며, 제단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들에게 가볍게 걸어 보는 농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루이스(Lewis)는 “그레함 그린의 삼부작”(“*The ‘Trilogy’ of Graham Greene*”)이란 논문에서 그린의 세 편의 대표적인 종교소설인 『브라이튼의 막대사탕』(*Brighton Rock*),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 『권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을 간결하게 요약하는데, 핑키(Pinkie)는 지옥의 자랑스런 시민이고, 스코비(Scobie)의 고통은 연옥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며, 『권능과 영광』은 이런 면에서 “신의 희극”(a divine comedy)이라고 말한다(Lewis 198). 그는 또한 주인공 위스키 신부의 성격을 전통적인 부랑아, 즉 피카로(picaro)의 “희극적인 불예측성”(the comical unpredictability)을 다분히 지닌 인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벌어지는 “위엄을 못 갖춘 도피”(undignified flights)가 곳곳에서 목격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도 “성자의 파라독스”(the paradoxes of sainthood)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Lewis 204).

위스키 신부가 마리아가 사는 마을에 이르게 된 것은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기는 하나, 그가 가장 머무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the unforgivable sin)를 지은 “절망의 장소”(the scene of his despair)(60)이지만, 비밀스런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과 자기 피붙이인 딸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정작 자기 “고향”(home)인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고향 사람들은 없었다. 누구 하나 그의 손에 키스를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마치 고향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돌아온 “국외망명자”(emigré)와 같았다. 패튼은 위스키 신부의 삶과 예수그리스도의 삶 사이에는 상징적인 연결 고리가 있

다고 했는데(Patten 225), 일 예로 위스키 신부가 자기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로 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태어난 곳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한 경우와 비슷한 일면이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고향 마을에 나타난 나뭇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신부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위스키 신부는 코랄의 마을에서도,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을 노인에게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I am your servant.)(45) 라는 말도 한다. 서록(Sharrock)은 위스키 신부를 “희생의 제물, 곧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the sacrificial victim, the suffering of Isaiah)과 비슷하다고 평한다(Sharrock 112).

위스키 신부가 고향마을에 와서 가장 염두에 두는 일은 딸 브리짓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각별한 사랑이다. 생각해 보면 딸의 탄생은 신부로서는 수치의 극치였다. 쫓기는 생활 속에서 찾아드는 공포, 절망, 슬기운,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무섭도록 부끄러운 행동의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다. 쿨스레스타(Kulshrestha)는 브리짓다의 출생을 “신부의 죄를 가장 객관화시킨 것”(the priest's sin is objectified.)이라고 본다(Kulshrestha 79).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딸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human love)을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느낀다. 그는 어린 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an immense load of responsibility)을 느끼는데, 그는 “이것이 사랑과 구별되지 않는다”(It was indistinguishable from love.)(66)라고 생각한다. 어디네스트 벌컨(Erdinast-Vulcan)은 이 시점에서 그가 진정한 신부가 되고 또한 진정한 아버지로서 “그의 인간애에 의한 무거운 짐”(the full burden of his humanity)을 느끼게 되는 전환점을 말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Erdinast-Vulcan 35). 위스키 신부는 이곳에 지난번에 왔을 때 딸아이에게 세례를 주면서, 어린 나이에 주름진 얼굴이 꼭 형겍인형을 닮았던 것을 기억하고 안쓰러워 했었다. 환경 때문인지 어린아이의 순진하고 태평스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파에 시달린 어른들의 “비웃는 듯한 모습”(a sniggering creature)이 보여 몹시 안타깝게 느꼈다(Sharrock 106). 더욱이 자신이 이곳을 떠나면, 이 어린 딸을 “버리고”(abandoned)(67)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위스키 신부는 문득 가난한 것을 범죄처럼 싫어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행복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며 딸아이의 처지를 더욱 안쓰럽게 여긴다.

위스키 신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미사를 드리면서 그의 특이한 대조적 방법으로 신앙과 삶을 설교하는데, “기쁨이란 항상 고통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고통도 기쁨의 일부분이 된다”(Joy always depends on pain. Pain is part of joy.)(69)고 말한다. 현세가 천국의 일부인 것은 고통이 기쁨의 일부분인 것과 같다. 그러니 고통을 꺼려할 것도 없고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기도하라고 설교한다. 값을 치를 돈이 없는 가난, 천연두, 열, 기아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천국의 일부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상의

천국은 불완전 하나, 그는 계속해서 천국은 경찰서장도 없고, 부당한 법도 없고, 군인도, 기아도 없고, 어린아이도 천국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설교한다. 이것이 바로 죽은 후에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천국이다. 미사를 드리는 동안 경찰이 1마일 떨어진 곳까지 와 있다는 정보를 듣는다. 미사를 마치려면 20분 가량이 남았는데 그들이 말을 타지 않고 도보로 올 수 있는 시간이다. 위스키 신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공포도 천국의 일부라며 설교한다. 위스키 신부는 “이상한 행복”(an absurd happiness)과 “커다란 만족감”(an immense satisfaction)(71)을 오랜만에 느낀다. 그가 영성체(the consecration of the host)를 행할 때에는 6년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 그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도피 중에도 성찬용기는 가지고 다녔다. 불심 검문에서 발각이 되면 신분이 드러나 죽을 수도 있지만 계속 가지고 다닌 것이다. 로지(Lodge)는 위스키 신부가 비록 비틀거리고 위엄이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사역을 고집스럽게 충성함으로써 결국에는 “진정한 순교자”(a genuine martyr)(Lodge 103)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전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성례를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를 절망에서 구해낸 힘의 원천이었다.

드디어 마을에 공산경위가 나타나게 되어, 그가 위스키 신부를 알아보지는 못 하지만 서로 조우하게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발생한다. 마리아는 위스키 신부가 영성체를 할 때 마신 포도주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생 양파를 가져다가 깨물어 먹으라고 권한다. 말을 타고 나타난 공산경위는 긴 장화에 번쩍거리는 쇠붙이를 단 복장을 하고 있었고 차갑고 성난 얼굴로 조용한 오두막집을 주의 깊게 살핀다. 경위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집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쳐서 그들을 나오게 한 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두 사람에게 대해서 말한다. 한 사람은 미국인 살인자로 현상금이 500 페소(pesos)가 걸렸고, 다른 한 사람은 신부로 700 페소의 현상금이 걸렸다고 말해준다. 공산경위는 살인자 보다 신부에게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신부는 “공화국의 배신자”(a traitor to the republic)(74)이기 때문에 그를 숨겨주는 자도 똑같이 배신자라고 규정한다. 신부들은 먹을 식량 대신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만 신이 여러분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나고 반문한다. 공산경위는 자기 신발을 만져보는 어린 여자아이를 측은한 마음으로 쳐다보며 “이 어린아이가 로마의 교황보다 더 소중하다”(74-75)고 말한다. 경위의 말은 얼핏 보면 약한 자를 위한 사랑과 평등의 정의가 있는 듯 하나, 그 안에는 계급투쟁식의 폭력과 증오가 내재해 있다. 그것은 위스키 신부가 잡히지 않자, 그를 대신해서 마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인질로 잡아가서 괴롭히고 죽이는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자신의 어린 딸을 보며, “이 아이가 대륙 전체 보다는 더 중요하다”(This child was more important than a whole continent.)(82)고 말하는데, 그녀에 대한 책임감과 연민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점이 공산경위와 확실하게 다르다.

경위는 한 사람씩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하여 묻는다. 브리짓다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위스키 신부를 가리키는 선에서 신부는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다. 자신

과 여러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차라리 경위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까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이 폭력적 상황에서 그는 “죽음이 고통의 끝이 아니다”(Death was not the end of pain.)(76)라고 생각한다. 경위가 미겔(Miguel)이라는 소년을 인질로 잡아가지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한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 중 하나가 잡혀가면 남아 있는 사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위스키 신부가 자신은 늙어서 일할 수도 없으니 인질로 가게 해 달라고 경위에게 말하지만 무시된다. 경위가 가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위협하니 산을 넘어서 라스 카사스(Las Casas)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한다. 위스키 신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the trouble maker)인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씩씩이를 고맙게 여긴다. 그는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애쓰는, 가난하지만 순박한 마을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짐”(burden of gratitude)(80)을 느낀다. 밀러는 이들 농부들만이 “진정한 지역사회 정신”(the true spirit of community)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과 대조적인 인물로서는 외국인, 정치가, 권력가로 대표되는 텐취 치과의사, 캡틴 펠로우스, 열렬한 루터교 신도인 레르스(the Lehrs)남매, 빨간 셔츠 민병대, 배신자 혼혈인 등이라고 언급한다(Miller 59). 실제로 그린은 1938년 멕시코를 여행했는데 추파스에 있는 교회에서 농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서 그린 자신이 신앙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특히 추바스와 타바스코에서 교회도 신부도 없는 형편에서 비밀리에 미사를 드리는 농부들의 신앙적 열심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알랭(Allain)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다(Allain 155).

딸과의 이별은 마을을 떠나는 위스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쓰레기 더미 옆 나무 밑둥 근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버려졌다는 인상”(an effect of abandonment)을 보여주는 듯 했고, 아이의 마음속에 벌써 세상의 “썩어진 부분”(the small spot of decay)이 자리잡은 듯 해서 위스키 신부는 “상실감”(the conviction of loss)(81)으로 마음이 흔들린다. 신부는 자신이 죽음의 대가를 치루고라도 좋으니 이 아이를 구해 달라고 기도한다.('O God, give me any kind of death - without contrition, in a state of sin - only save this child.') 그리고 손을 뿌리치는 아이에게 “사랑한다 내가 네 아버지이다”(I love you. I am your father.)(82)라고 말하며 마지막 작별을 한다. 위스키 신부는 독일계 미국인인 레르의 집에서 그녀에게 자신 이외에 다른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신앙심 깊은 루터 교도인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Loving God isn't any different from loving a man - or a child.)(173)고 말해준다. 위스키 신부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새 계명으로 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스키 신부는 고향 마을을 떠나서 라 칸델리아(La Candelaria)를 거쳐 그가 태어

난 곳이며 그의 부모가 죽은 후 묻힌 카르멘(Carmen)으로 향하게 되는데, 도중에 그는 한 혼혈인을 숙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혼혈인은 위스키 신부에게 카르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접근하며 무엇인가 위스키 신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의도적인 질문을 한다. 자신을 기독교도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해성사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며 속임수를 쓰려고 시도한다. 이때 위스키 신부는 자신을 호세 신부와 잠깐 비교하는데, 자신이 호세에 비해 야심과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위스키 신부는 현상금 때문에 자기를 신고하려고 정탐하고 있는 혼혈인이 감기의 열로 춥다고 하자 자기의 옷을 벗어주는 “괴팍한 자존심” (devilish pride) 즉 “천사가 타락한 죄” (the sin by which the angels fell)(95)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중 화자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 위스키 신부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신부가 됐다고 말한다. 작중 화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한다.

예수가 죽은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였다. 네가 너에 대한 죄를 더 많이 보고 들을수록 더 큰 영광이 죽음의 둘레에 입하였다.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가정이거나 어린이나 문명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았다. 반신반의하고 부패한 자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었다(97).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을 떼어놓고 카르멘으로 가려고 마음먹지만 혼혈인은 나귀의 안장을 감추고 못 가게 한다. 결국 그는 혼혈인을 떼어놓지 못하고 나귀에 함께 태우고 가게된다. 혼혈인이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유다(Judas)가 분명 한데, 그를 데리고 감으로써 위스키 신부는 마음 속에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작은 만족감을 느낀다(a small coal of cruel satisfaction glowed at the back of the priest's mind - this was Judas sick and unsteady and scared in the dark.)(99). 위스키 신부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God forgive me.)라고 조용히 기도한다. 작중 화자의 말은 이렇게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자존심, 욕정, 비겁함이 있는 그가 (위스키 신부) 어떻게 혼혈인 보다 죽음에 있어 더 가치 있는 척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돈을 위해서 나를 배신하여 팔려고 했는데 그 는 (위스키 신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었는가(99)?

위스키 신부는 노란 송곳니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혼혈인을 보면서, 그가 노리고 있는 700페소의 돈이 그가 살아 갈 큰돈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소리내어 웃는다. “위스키 신부는 절망에 이른 후에 인간의 영혼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He had given way to despair - and out of that had emerged a human soul and love.)(100). 마치 위스키 신부와 혼혈인 사이엔 “무장해체와 같은”

(like an armistice) “평화”(peace)가 자리한다. 물론 위스키 신부가 “적을 돕는”(helping your enemies)(99)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이때 혼혈인은 당신은 신부님이지요? 라고 묻는데, 신부는 서슴없이 “그렇다”(Yes)라고 대답한다. 작중 화자는 “그들이 서로 대치해 있던 군인 참호에서 나와서 서로 친구가 되어 만나는 것 같다”(as if they had climbed out of their opposing trenches and met to fraternize among the wires...)(100)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브라이튼의 막대사탕』(*Brighton Rock*)에서 악의 상징인 핑키(Pinkie)와 선의 상징인 로즈(Rose)가 서로 대립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 보완되는 종교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면과 비슷하다. 위스키 신부는 예전에 인디언 어린아이가 “신이 어떻게 생겼지요?”(What is God like?)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지어 설명했던 것을 상기하며 다시 그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신은 부모이고, 또한 경찰관이고 범죄자이고, 신부이고, 미치광이이고, 환사”(101)라고 생각한다. 비평가들은 이 부분을 “위스키 신부가 생각하는 신인동형의 신”(an anthropomorphic God)(Choi 81)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죄가 있으며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의 섭리 안에서 그 존재는 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느 누구든 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위스키 신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신이 두꺼비처럼 생겼다면 너는 두꺼비의 눈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이 네 자신처럼 생겼기 때문에 돌로 만든 물건이 네 맘에 들든 들지 않든 원한다면 네 자신을 죽여야만 한다”(If God had been like a toad, you could have rid the globe of toads, but when god was like yourself, it was no good being content with stone figures - you had to kill yourself among the graves.)(102).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위스키 신부 또한 후에 남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만드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자기 혼자 남겨 두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당신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혼혈인이 외치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수도인 빌라히모사로 혼자 향한다.

수도에 들어온 위스키 신부는 어느 한 거지를 통해서 포도주를 사려고 시도한다. 그 거지는 그 지방 주지사의 사촌을 통해서 금주령이 행해지는 그곳에서 술을 구하는 법을 알고 있다. 술을 사는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서 멕시코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 사회인가가 잘 드러난다. 위스키 신부는 술을 소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빨간 셔츠 민병대에게 쫓기던 중 호세 신부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오랜 만에 위스키 신부를 만나는 호세 신부지만 그는 겁에 질려 만약 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그가 얼마나 신부답지 못하고 “비천한”(humble)(95) 가를 또 다시 잘 드러내 주는 장면이다. 위스키 신부는 호세의 집에서 나오면서 빨간 셔츠 민병대의 검문으로 붙잡힌다. 그는 곧 이 사건에서도 죽음을 예감했는지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데, 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딸에 대한 염려이다. 그는 경찰서에서 5페소의 벌금형을 받지만 지불할 돈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노역하도록 명령받는다.

위스키 신부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세상을 축소한 것”(microcosm of the world)(De Vitis 79)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정욕과 범죄와 불행한 사랑”(lust and crime and unhappy love)(125) 으로 뒤범벅이 된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평가가 있음을 그는 깨닫는다. 한 노인은 술집에서 살인하여 딸과 헤어졌는데 그녀를 찾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스키 신부는 쓰레기 더미 옆 나무에 앉아서 보호받지 못한 채 있었던 딸을 생각해 낸다. 그는 모든 것의 끝을 생각한 듯 자신이 신부임을 감옥 속의 사람들에게 밝힌다. 그 안에 있던 신앙심 깊은 한 여인은 이곳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신분을 밝히면 되느냐고 그에게 염려해주며 또한 자기의 고해성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들어주지 않고, 회개 기도문을 외우라고 통명스럽게 말한다. 위스키 신부는 일주일 전 자기를 고발하려고 숲 속을 따라 다녔던 혼혈인 보다 이 신앙심 깊은 여인에 대해서 더 연민이 느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그녀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책임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말한다(131). 그녀는 “추상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불신”(distrust of abstract ideas)(Choi 85)을 했고,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구체적 것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 열렬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상학원(the Academia Commercial) 뒤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인 전기를 읽어 주는 신앙심 깊은 한 어머니에 대한 반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녀는 교회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던 젊은 환(young Juan)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젊은 환을 신앙의 유일한 가치기준으로 여긴 반면, 위스키 신부에 대해서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의 이러한 점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밀러는 『권능과 영광』이 죽음, 심판, 천국, 지옥 등 “종말론”(eschatology)을 다루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인문학”(the hagiology)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젊은 순교자 환의 이야기를 듣기 좋은 “설탕 이야기”(the saccharine tale)라고 부른다(Miller 57-58). 위스키 신부는 감방 속에서 만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그것은 곧 이어 책임감과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위스키 신부는 노역을 마치고 경찰서 안에서 두 번째로 공산경위와 마주하게 된다. 위스키 신부는 경찰서 벽에 현상금이 걸려있는 젊은 신부였을때의 자신의 사진을 “참기 어려운 피조물”(unbearable creature)로 바라본다. 지금에 비해 순진했지만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했고 남을 사랑할 줄 몰랐던 그때를 생각한다.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로 인해 죄를 깨닫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위는 경찰서 밖으로 나가는 위스키 신부가 무일푼인 것을 알고 불쌍해서 그에게 5페소의 돈을 준다. 위스키 신부는 그에게 “당신은 선한 사람이오”(You’re a good man.)(140)라고 답례한다. 공산 경위 또한 위스키 신부를 체포한 후 처형 직전 그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오”(You aren’t a bad fellow.)(201)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상호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그들이 충성하고 있는 교회와 공산정부가 그들을 “화해할 수 없는 적”(irreconcilable enemies)(Hoskins 255)으로 만들고 있다.

애담슨은 이들 두 세력을 “신의 종교”(the religion of God)와 “인간의 종교”(the religion of man)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Adamson 62). 애담슨은 그의 저서 『그레함 그린: 위험한 가장자리』(*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에서 1930년대의 그린의 정치적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버크햄스테드(Berkhamsted)에서 “사회적인 무책임”(social irresponsibility)을 피부로 느끼면서 “구질서”(old order)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염려하게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사람들이 “앵글리칸 교회”(Anglican church)를 찾았는데, 그린은 그것을 카톨릭 교회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기적인 면과 탐욕에서 파생된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종교적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린은 질서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불신했다. 그린은 “카톨릭리즘”(Catholicism)이 계급 투쟁의 폭력 없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질서를 회복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린은 멕시코에서도 사회개혁 이라는 미명아래 행해지는 “신이 없는 사회 구조조정”(a godless social reorganization)은 실패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진정한 사회 변화를 원했지만 좌익적 정부를 믿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적인 가정을 보장해 주는 방어자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보고 있다(Adamson 44-65). 루이스도 1930년대의 시대상황에 대한 그린의 인식에 대해, 『권능과 영광』의 불어판 서문에서 이 소설이 “부조리에 대한 유럽인의 인식”(European sense of absurdity)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모리악(Mauriac)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 소설이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시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알레고리”(a potent allegory)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Lewis 207-208). 펜델톤(Pendleton)은 이 소설 속의 교회와 정부의 갈등이 카톨릭적 주제를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플롯(plot)으로 만들어 놓고있다고 말함으로써 “정치적 드릴러”(the political thriller)와 “내면적 이야기”(the interior narrative)가 결합된 작품임을 밝히고있다(Pendleton 97-98). 또한 많은 비평가들이 이 소설을 “알레고리 소설”(allegory novel)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드비티스는 신부와 경위의 이름이 없는 점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De Vitis 77). 이처럼 그린은 『권능과 영광』에서 개인적 신앙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유럽사회의 혼란스런 사회인식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카톨릭 교회를 사회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서에서 나온 위스키 신부는 산과 강을 건너 바나나 농장 쪽으로 가는데,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헤메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어느 인디언 농가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는 자연사 박물관에나 전시되어 있을 법한 비쩍 마른 개가 뼈 하나를 앞에 놓고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본다. 그는 이 개를 보며 절망감에 둘러싸여 차라리 경찰서에서 신분이 밝혀지기를 바랬던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을 떠올린다. 신앙생활도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이라 할 수 있다. 곧 이어 그는 숲 속에서 한 인디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뒤를 따라가 보니 세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머리

에 충을 맞고 신음하고 있었다. 위스키 신부는 자기의 셔츠를 찢어서 상처를 싸매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들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안타까워한다.

독실한 루터교도인 레르의 집에 도착한 위스키 신부는 노자와 안내인을 준비하고 이제 3일 후면 도착할 안전한 곳인 라스 카사스로 가는 꿈에 부풀어있다. 그곳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도, 어린 딸에 대한 생각이 다시 머리에 떠오른다. 안내인과 함께 막 길을 떠나려는 순간 어디선가 혼혈인이 다시 위스키 신부 앞에 나타난다. 혼혈인의 용건은 미국인 강도가 죽어 가면서 신부를 찾고 있으니 그리로 가자는 것이다.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강도가 있는 곳이라스 카사스 지방과 반대 방향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나나 농장에서 총상을 입은 인디언 아이에 대한 생각과, 혼혈인이 총상을 입은 강도에게서 받았다는 고해성사를 해달라는 쪽지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되돌아간다. 위스키 신부는 혼혈인과 함께 5시간을 나귀를 타고 가서 총상을 입은 미국인 강도를 찾게 된다. 신부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의 입 가까이 대고 고해성사를 시키려하지만, 그는 신부에게 자기는 내버려두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하며 자기의 칼을 가져가라고 말한다. 드비티스는 위스키 신부가 유다를 꼭 닮은 혼혈인의 제안을 수용할 때부터 “추적자”(the pursuer)로 바뀌어지고, 공산경위는 “쫓기는 자”(the pursued)가 되는 역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De Vitis 81). 이 역전은 경찰서에 잡혀온 위스키 신부와 공산 경위의 세 번째 대면으로 계속 이어진다.

III. 결 론

처형을 앞두고 공산경위와 위스키 신부가 나누는 대화는 그들의 정신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산경위는 경찰서에서 위스키 신부를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한다. 경위는 신부에게 인간적으로는 그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인다고 말하자, 신부는 그 이유가 경위가 신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공산경위는 신부 때문에 인질을 세 명이나 죽였다고 말하면서 후회를 한다. 혼혈인도 신부에게 사죄의 의미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도 신부에게 굴복한 것이다. 공산경위는 그가 이제껏 전력을 다해서 쫓았던 위스키 신부를 붙잡고 보니 그의 마음은 허전할 뿐 “승리나 희망”(triumph or hope)(202)은 찾을 길이 없다. 위스키 신부는 죽기 전에 자신이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호세 신부를 불러달라고 공산경위에게 부탁한다. 공산경위는 호세 신부에게 경찰서로 와 달라고 하지만 결국 호세 신부는 오지 않는다. 공산경위는 위스키 신부에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독방에서 보통방으로 옮겨 주려하고 술도 가져다주는 배려를 한다. 또한 총살의 공포를

덜어 주기 위해 신부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We have to die some time.)(206)라고 위로한다. 이제 위스키 신부는 누구에게도 “원한”(grudge) (198)의 감정이 없이 다만, 그는 딸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바로 “이런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진작 느꼈어야 했던 사랑이다”(This was the love he should have felt for every soul in the world.)(208)라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는 혼혈인, 공산경위, 텐취 치과의사 등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유일한 큰 실망”(only an immense disappointment)이 하나님에게 아무 한 일이 없이 “빈손으로”(empty-handed)(210)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성자”(saint)(210)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쫓기던 도피의 여정을 마감한다.

『권능과 영광』은 그린의 여러 소설에서 쉽게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는 쫓고 쫓기는 추적의 구성(plot)으로 되어 있다. 추적의 한 축은 종교적 질서(religion order)를 대표하는 위스키 신부가 세속적 질서(secular order)를 대표하는 공산경위에 의해서 쫓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De Vitis 78). 그러나, 다른 한 축은 위스키 신부의 도피는 곧 신으로부터의 도피로써 이런 도피의 과정을 통해 신 앞에 자신의 죄 된 모습을 철저히 바라보는 자기인식(self-recognition)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 젊었을 때의 순진한 신앙생활 보다 타락한 후의 생활 속에서 감추어졌던 자기의 죄 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다. 위스키 신부와 공산경위의 관계도 결국에 가서는 경위가 신부에게 굴복을 하게된다. 공산경위 역시 신의 “덫에 갇힌 사람”(the trapped man)(Kulshrestha 87)이다. 위스키 신부가 죽고 난 후 이 소설의 처음에 등장하던 공허하고 “미적지근한”(lukewarm)(Lewis 208)성격을 가진 “방관자들”(the bystanders)도 각기 자기 고국으로 떠나 새 생활을 할 준비를 하게 되고, 공산경위의 “남성다움”(the machismo)(Kelly 51)에 매료되었던 루이스(Luis) 소년이 경위의 총에 침을 뱉는다. 위스키 신부는 젊었을 때에는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이 사생아를 낳고 그 사생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하게 된다. 결국, 그는 강도의 마지막 고해성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사제로서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지만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되고 여정의 끝은 사제로서의 거룩한 순교를 하게되는 은혜의 순간을 맞게 된다. 그린은 위스키 신부를 통해 죄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과 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 죽음을 이기는 순교자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한 인간이 죄와 그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 은혜로 연결되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다.

참 고 문 헌

- 최재석. *그레엄 그린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93.
- Adamson, Judith.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London: Macmillan, 1990.
- Allain, Marie-Françoise. *The Other Man: Conversations with Graham Gree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1.
- Allott, Kenneth, and Farris, Miriam. *The Art of Graham Greene*.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3.
- Choi, Jae-Suck. *Greene and Unamuno: Two Pilgrims to La Mancha*. New York: Peter Lang, 1990.
- De Vitis, A.A. *Graham Greene*. Boston: Twayne, 1964.
- Duran, Fr. Leopoldo. *Graham Greene: An Intimate Portrait by His Closest Friend and Confidant*. Trans. Euan Cameron. London: HarperCollins, 1994.
- Erdinast-Vulcan, Daphna. *Graham Greene's Childless Fathers*. London: Macmillan Press, 1988.
- Greene, Graham. *The Power and the Glory*. New York and London: Penguin, 1980.
- _____. *The Honorary Consu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0.
- Hoggart, Richard. "The Force of Caricature: Aspects of the Art of Graham Green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Power and the Glory*." in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Hoskins, Robert. *Graham Greene: An Approach to the Novel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9.
- Kelly, Richard. *Graham Greene*. New York: Ungar, 1984.
- Kulshrestha, J.P. *Graham Greene: The Novelist*. New Delhi: Macmillan Co. of India, 1977.
- Lewis, R.W.B. "The 'Trilogy'." in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Englewood: Prentice-Hall, 1973.
- Lodge, David. *Graham Greene*. New York: Columbia U P, 1966.
- Patten, Karl. "The Structure of *The Power and the Glory*." *Modern Fiction Studies*, 3(1951): 225-234.
- Pendleton, Robert. *Graham Greene's Conradian Masterplot*. London: Macmillan, 1996.
- Sharrock, Roger. *Saints, Sinners, and Comedians: The Novels of Graham Greene*. Tunbridge Wells and Notre Dame: Burns and Oates and U of Notre Dame P, 1984.

이 광 희
공주대학교 관광학과
314-701 충남 공주시 옥룡동 326번지
Tel: (041) 850-6150
Email: leekh@kongju.ac.kr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anuary, 2002